



고창 무장현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조선시대 군사시설 건물지 발굴

조선의 최첨단 비밀병기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11점 출토... 현장공개 설명회도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중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조선시대 훈현청과 군기고로 추정되는 군사시설과 조선시대 최첨단의 화약 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11점이 출토됐다.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은 무성현과 장사현을 통합하여 1417년(태종 17)에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됐으며,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다.

고창군은 2003년부터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이 이렇게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적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한 후 복원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장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훈현청과 군기고로 추정되는 건물지 10여동과 수혈, 도로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1호 수혈에서는 조선시대에 발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가 출토되었으며, 바로 인접하여 포대(砲臺)시설도 확인되었다.

비격진천뢰는 조선 선조 때에 발명되었으며,

목표물에 날아가서 천둥번개와 같은 굉음과 섬광, 수많은 파편을 쏟아내면서 폭발하는 작렬(炸裂) 시한폭탄으로, 중완구(中碗口)라는 화포에 장전해서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비격진천뢰는 보물(제860호)로 지정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하여 모두 6점에 불과하며, 이번 발굴조사에서 11점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출토된 비격진천뢰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며, 크기는 직경 21cm, 무게 17~18kg으로 비슷하다.

또한 비격진천뢰가 출토된 수혈 주변에서는 포사격 시설로 추정되는 포대(砲臺)가 조사됐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170cm이며, 돌을 편평하게 깔아 견고하게 시설한 후 흙을 다져 바닥면을 마련했다. 또한 포의 거치대로 추정되는 2개의 기둥구멍이 포대 남쪽에서 확인됐다.

따라서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이 왜구의 방어를 위해 축성된 점으로 볼 때, 훈현청·군기고, 비격진천뢰와 포대시설, 해자 등의 군사시설 및 100여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군량창고(사창터)와 이를 원활히 운반할 수 있는 도로 및 적교시설 등은 무장읍성이 호남지역

중요 군사요충지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발굴조사는 (재)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윤덕향)에서 사창지 등의 건물지와 문지, 성벽, 해자(壕字), 적교(吊橋)시설 등의 조사성과가 있었다.

또한 발굴조사 및 고지형 분석을 바탕으로 읍취루, 진무루, 동헌 담장과 삼문, 연지와 정자 등이 복원되었으며, 성벽의 정비복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그동안의 무장현 관아와 읍성의 발굴성과가 '한반도 첫 수도'인 고창이 조선시대까지도 중요 거점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근거"라며, "앞으로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민의 소득창출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무장읍성을 문화유산 거점지역으로서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과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15일 오후 '현장공개 설명회'를 열어 연구자들과 군민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알리고 발굴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가야 문화제 '미지에서 미래로'... 내일 한누리전당서

제1회 장수가야 문화제가 내일 오후 5시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펼쳐진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초록누리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열리는 '제1회 장수가야문화제-미지에서 미래로' 문화제에는 장영수 군수와 김종문 군의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깃절놀이와 전시회, 기타와 노래, UCC공모 당선작 영상 상영, 시극, 인형극, 자매 판소리 공연, 난

타,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야문화제를 통해 장수 가야의 현저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가야문화제는 무료로 열리며 국민이면 누구나 관람 및 참여 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 방앗간 살림집(이하 살림집) 준공식이 15일 부남면 대소리현장에서 진행됐다.

무주의 250년 전통 잇는다

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 방앗간 살림집 준공

무주군 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 방앗간 살림집(이하 살림집) 준공식이 15일 부남면 대소리 현장에서 진행됐다. 살림집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 무주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의 전승과 육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조성한 것으로, 안채(51.84㎡)와 바깥채(31.59㎡), 토석담장(57m)을 갖췄다.

준공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 보존회 유재두 회장과 부남면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테이프커팅, 마당밧기 등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오랜 숙원을 푸는 자리라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반딧불축제와 공연, 그리고 경연들을 통해 디딜방아역마이놀이를 알리고 또 맥을 이어온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곳에서 연습도, 친교도 나누시고 의복과 소품들을 보관도

하시면서 전수에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는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고 재앙을 몰아내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춤과 풍악, 제례의식을 곁들이며 이어온 전통 민속놀이로, 무주반딧불축제의 태동과 함께 22년째 시연을 했으며 부남면민의 날과 정월대보름행사에서도 주민들이 화합을 위해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전북도민체전을 비롯해 서울예술의전당 공연을 통해서도 이름을 알렸으며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됐다.

무주부남디딜방아역마이놀이 보존회 유재두 회장은 "디딜방아역마이놀이만을 위한 공간이 생겨 정말로 기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지고 참여도 더 많아져 디딜방아역마이놀이가 무주의 전통놀이로 후손대대 탄탄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